

서구적 사유방식에 대한 지적 성찰의 결정체

한스 페터 뒤르 외의 《신, 인간 그리고 과학》을 읽고

장석만 | 한국종교연구회 연구원

이 책은 다섯명의 저명한 독일학자들이 모여 '우주'와 '생명' 그리고 '정신'에 대해 나눈 대화를 기록한 것이다. 우주와 생명, 그리고 정신에 대한 이들 각자의 입장은 다르지만 계몽주의에 바탕을 둔 근대과학적 세계관은 더 이상 지탱될 수 없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온화하고 맑은 여름날,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어느 별장에 다섯 명의 저명한 독일학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눈다. 양자물리학자, 생물학자, 신학자, 철학자들로 이뤄진 이들은 사흘 동안 우주와 생명, 그리고 정신을 주제로 각자의 입장을 펼쳐 보인다. 이들의 대화는 서로의 의견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점을 뚜렷이 보여준다. 그러나 대화를 마친 참석자들은 세상 보는 관점의 다양성을 다시 확인하며, 서로 만나 뜻깊은 경험을 했다는 흐뭇한 기분을 즐긴다.

근대과학적 인식태도에 대한 비판

도대체 이 세상은 왜, 그리고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이 세상이 생겨나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도 한 번씩은 던져 봤을 이런 질문에 대해 다섯 명의 학자는 기독교의 창조론과 학계의 유력한 우주생성론인 빅뱅이론을 거론하며 첫날의 논의를 시작한다. 그리고 곧 그들의 관심은 자연과학적 인식의 성격과 그 한계에 대한 문제로 모아진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은 왜 생겨난 것일까? 인간이 생명체의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어떤 것인가? 둘째날의 주제인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점, 그리고 인간의 특이성에 대한 논의로 시작돼 생태계 파괴가 자행되는 현실점에서 인간이 짊어져야 할 책임에 대한 강조로 마감한다.

정신이란 무엇일까? 의식과 영혼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일까? 인간은 어떻게 정신을 지니게 된 것일까? 이런 물음을 던지며 세번째 주제인 인간의 정신활동에 대해 대화를 나눈 다섯 학자는 결국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의 문제로 돌아온다. 이들은 첫날에 논의된 바 있던 근대과학적 인식태도의 부적절함을 다시 강조하며 대화를 마친다.

각자의 관점 차이에도, 다섯 학자가 공유하고 있는 것은 계몽주의적 오만함에 바탕을 두고 있는 근대과학적 태도를 철저히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에 따르면, 인식주체와 객체를 분리하고, 인간과 자연을 정복관계로 보며, 정신과 물질의 양분법 및 사실과 의미의 양분법을 당연시하는 근대과학적 태도는 더 이상 지탱될 수 없다. 그 대신 양자물리학과 진화론적 인식론의 관점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며, 초월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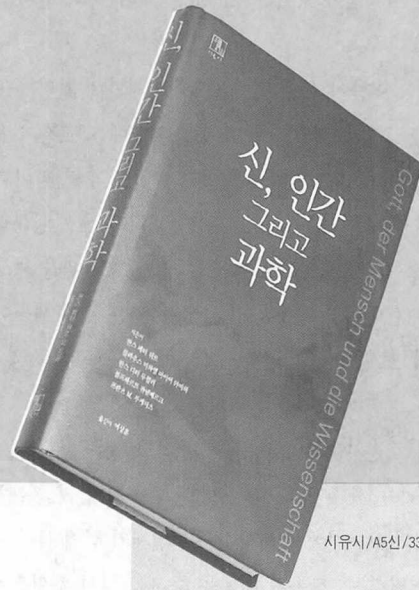
사흘 동안 이뤄진 다섯 학자의 논의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은 항상 배경을 이룬다. 이 세계관에 동조를 하건 반대를 하건 간에 이들은 기독교적 관점을 늘 의식하고 있다. 이는 서구문화의 밑바탕에 흐르는 기독교의 영향력을 암묵적으로 보여준다. 사실 근대과학도 기독교적 세계관이 없었다면 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은 설득력이 있다. 참석자 가운데 한명이 말했듯이 "자연에서 질서를 보았기 때문에 신을 상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세계의 질서를 파악할 필요가 생긴 것"(55쪽)이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자신들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성찰하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의식하며 토론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고전 물리학의 붕괴가 가져온 파급효과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서구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주와 생명, 그리고 인간의 정신에 대해 묻고 답해 온 전통이 있다. 그러다가 백여 년 전부터 우리는 서구의 모델을 좇아 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세상을 보고 묻는 방식도 전면적으로 바뀌버렸다. 그 이후 우리의 삶은 항상 그들보다 뒤쳐져 있음을 느끼면서 서구인의 물음방식을 모방하기에 바쁜 세월이었다. '빨리 빨리'를 외치며 달려온 여태까지의 '근대적' 삶은 바로 처절한 서구모방으로 점철돼 있다. 그런데 오히려 서구인들은 이제 자신의 세계관 전체를 다시 묻고 인식의 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 책은 고전 물리학의 패러다임이 무너지면서 일어난 파급효과로 인해 생겨났다.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기대할 수 있는 파급효과는 무엇일까? 그것은 서구인들이 자신의 전통을 어떤 방식으로 반성하는지 유심히 살필으로써, 서구를 모방하느라 그 동안 잊어 버리고 있었던 우리 나름의 물음방식을 재검토해 보는 일이 아닐까? ●



시유시/A5신/332면/12,000원